



## 에너지전환연구회 제3차 워크숍

－ 충남 그리고 에너지협동조합을 생각하다 －

### 1. 목적

- 에너지전환 및 지역에너지체계 분야 연구자간 관련 정보·지식의 공유하고 에너지전환 및 지역에너지체계 관련 연구 및 정책 동향을 조사하여 도 및 시·군정에 활용 가능한 정보 및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함
- 유럽 에너지협동조합의 현황과 과제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충청남도에서 적용 가능한 정책과제를 모색함

### 2. 워크숍 개요

- 일 시 : 2014년 10월 18일(토) 14:00~17:00
- 장 소 : 천안 ‘공간사이’
- 주 최 :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사회적경제센터·에너지전환연구회
- 참 석 자 : 총 30명 (충남발전연구원 6명, 발표·토론자·통역 5명, 기타 참석자 19명)

### 3. 진행 순서

시간	소요시간	내용	비고
13:30~ 14:00	(30분)	등록	
14:00~ 14:10	(10분)	개회 및 소개	여형범(충남발전연구원)
14:10~ 15:10	(60분)	【주제발표】 유럽의 에너지협동조합 현황과 쟁점	단 클로이펠란트 (유럽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 프로젝트 매니저)
15:10~ 15:25	(15분)	Coffee Break	단상 정리
15:25~ 16:05	(40분)	【지정토론】	김성원(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 남원근(충남적정기술협동조합연합회)
16:05~ 16:45	(40분)	【자유토론】	참석자 전원
16:45~ 17:00	(15분)	안내 및 폐회	여형범(충남발전연구원)



Ecopower cvba



##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단 클로이펠란트(Daan Creupelandt)

서울 - 2014년 10월 17일

충남 - 2014년 10월 18일

# 단 클로이펠란트 (Daan Creupelandt)

- 경영학 석사 (MBA)
  - 수상 2009년 유럽 비즈니스 연구소
  - 벨기에 협동조합 사업 모델 연구
  - 인턴 - 벨기에 REScoop인 에코파워
- 사회적 기업의 업무 통합에 관한 학술연구
- 재무담당 & 유럽 프로젝트 매니저
  - REScoop 20-20-20
  - 커뮤니티 파워(Community Power)
- REScoop.eu 연맹 설립에 깊게 관여함



Ecopower cvba



Co-funded by the Intelligent Energy Europe  
Programme of the European Union

# 개요

1. 에너지 전환
2. REScoop
3. REScoop 20-20-20
4. 에코파워
5. REScoop.eu
6. REScoop - 관리 및 사업 모델

# **1. 에너지 전환**

2. REScoop

3. REScoop 20-20-20

4. 에코파워

5. REScoop.eu

6. REScoop - 관리 및 사업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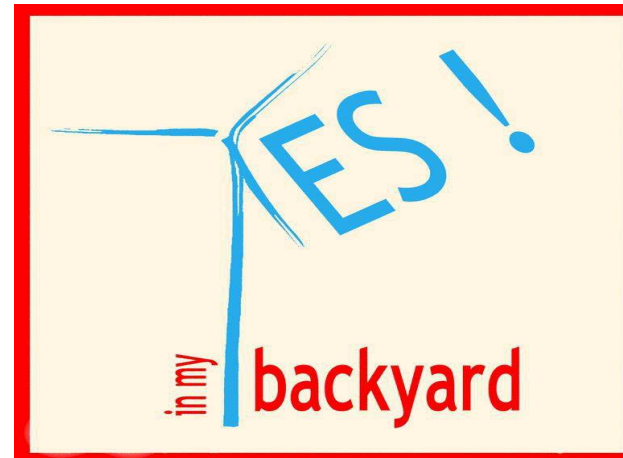
# 1. 에너지 전환

- 유럽 20-20-20의 목표
  - 이산화탄소를 1990년 수치 대비 20% 감소
  - 에너지 효율성 20% 증가
  - 재생 에너지 생산 20%
- 에너지 전환
  - 화석 및 핵에너지 → 지속가능한 에너지
  - 중앙화 된 에너지 생산 → 탈중앙화 된 에너지 생산
  - 에너지 낭비 →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
  - 수동적 소비자 → 능동적 생산/소비자(prosumer)



# 1. 에너지 전환 (2)

- 시민들은 RES를 "무언가" 중요한 문제로 인식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RES를 도입하려고 하진 않음
  - 사람들은 도전을 싫어함
  - 효과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음
  - 풍력 프로젝트의 경우 성공율이 5%에 불과
  - 20-20-20은 요원함
- 에너지 전환을 편리하게 이뤄내는 것이 실질적인 도전과제





# 1. 에너지 전환 (3)

사람들은 귀를 의심하는 경향이 있음



# 1. 에너지 전환 (4)

- REScoop이 긍정적 태도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
  - 사람들은 RES 프로젝트의 공동 소유주가 됨
  - 조합원들은 100%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구매
  - 조합원들은 의결권을 가짐
  - 조합원들은 이익을 공유함
- 더 이상 상관없는 회사의 프로젝트가 아님
- 자신의 프로젝트가 됨
- RES(재생에너지)와 EE(에너지효율화)에 관심을 갖게 됨
- 프로슈머가 됨
- REScoop은 RES를 위한 사회적 수용을 촉진함!



1. 에너지 전환

**2. REScoop**

3. REScoop 20-20-20

4. 에코파워

5. REScoop.eu

6. REScoop - 관리 및 사업 모델

## 2. REScoop

-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하는 시민 집단
- 다양한 활동
  -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 개발
  - 조합원들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 서비스 공급



## 2. REScoop (2)

- 일곱 가지 협동원칙 존중 (ICA)

1. 자발적이고 개방된 조합원제
2. 민주적인 조합원 관리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4. 자율 및 독립성
5. 교육, 훈련 및 정보
6. 조합간 협력
7. 지역사회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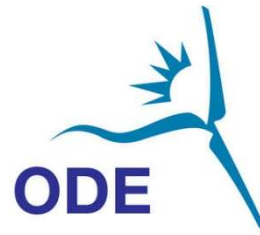


- 하나의 법적 양식에 구속되지 않는다!
- 유럽 전역에 약 2,400개의 REScoop이 존재함

1. 에너지 전환
2. REScoop
- 3. REScoop 20-20-20**
4. 에코파워
5. REScoop.eu
6. REScoop - 관리 및 사업 모델

### 3. REScoop 20-20-20

- 유럽 지능형 에너지
  - 유럽 중소기업청
  - 12개 조직 - 8개 국가
  - 36개월





### 3. REScoop 20-20-20 (2)

#### 목표

- 지역 REScoop의 설립에 관한 실질적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RES의 사회적 수용 향상
- 유럽 내 RES 프로젝트 및 협동조합 설립 가속화

#### 방법

- 기존 REScoop의 경험을 모음
- 전문가 네트워크 내 정보 공유
- 시작단계의 REScoop 지원
  - Sifnos
  - Krk





### 3. REScoop 20-20-20 (3)

#### • 프로젝트 결과물

- 기본지식 축적 (지도)
- 기존 사업모델 보고서
- 유럽 내 모범사례 보고서
- REScoop에 존재하는 재정적 장벽 및 기존의 해결책에 관한 보고서
- RES 프로젝트 이해당사자 참여 및 관리 지침
- RES 프로젝트 투자 핸드북
- 국가별 정보가 담긴 책자
- 이벤트 (예, 워크숍, 회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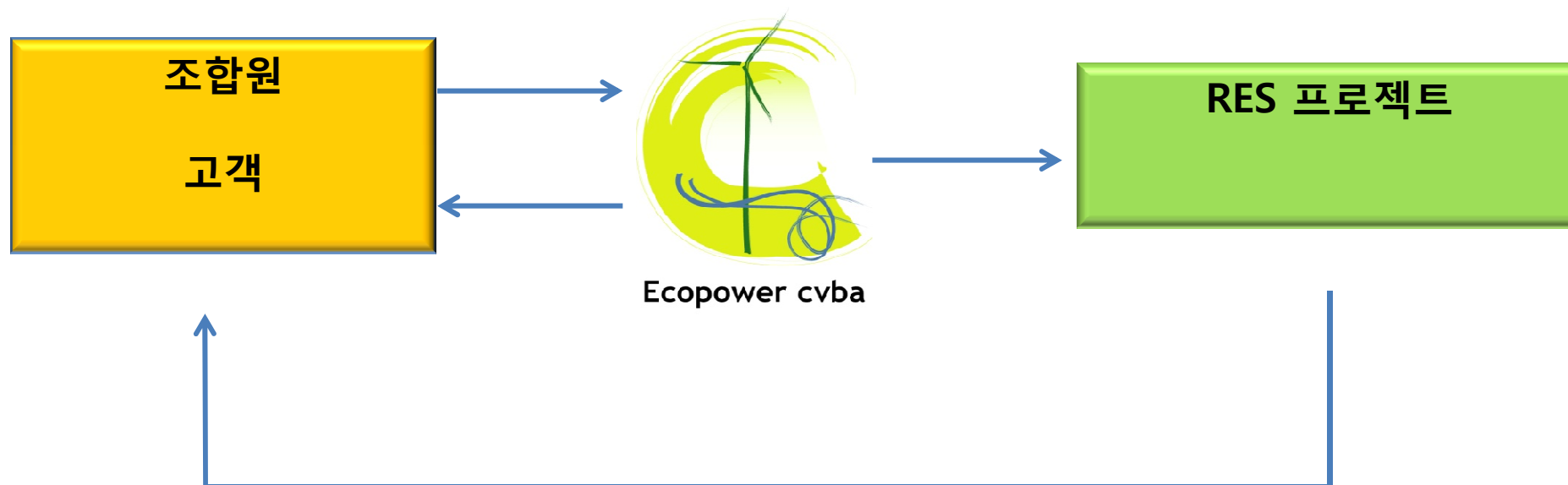
1. 에너지 전환
2. REScoop
3. REScoop 20-20-20
- 4. 에코파워**
5. REScoop.eu
6. REScoop - 관리 및 사업 모델

## 4. 에코파워

### 세 가지 분명한 목적

1.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개발 및 투자
2. 조합원들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3. 다음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토록 함
  -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
  - 지속가능한 에너지
  - 협동조합의 기업가 정신

## 4. 에코파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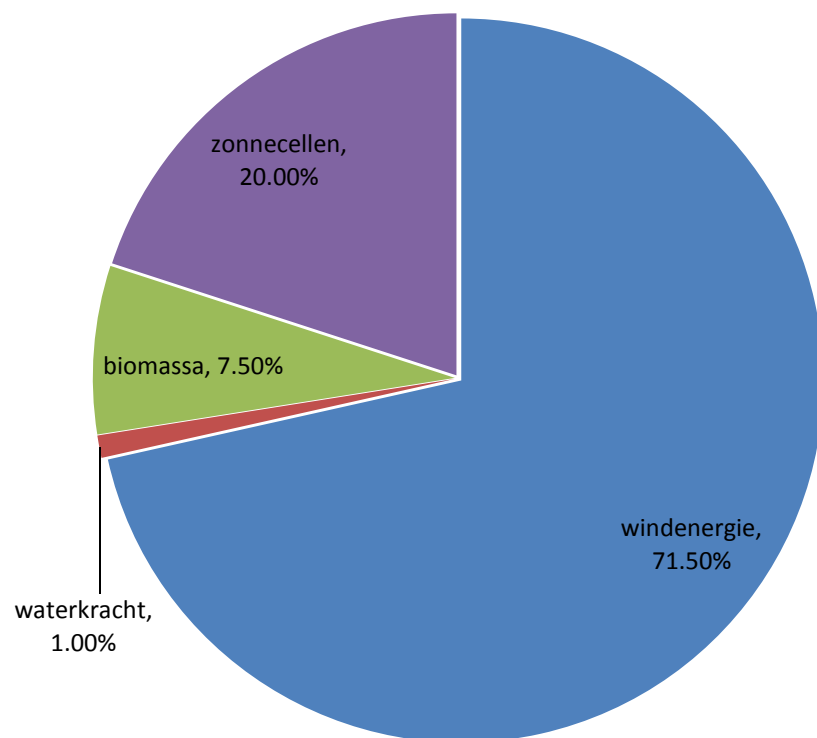
## 4. 에코파워 (3)

- 47,419명의 주주
- 193,315주
- 40,247명의 고객
- 민간자본 = 5,320만 유로 (713억원)
- 총계 = 6,620만 유로 (888억원)
- 연매출 = 2,570만 유로 (345억원)
- 수익 = 990,256유로 (13억원)
- FTE(상시고용인력) = 23
- ROI(투자수익율) = 2%
  - 협동조합의 경우 최대 6%
  - 지원 체계는 축소 중



## 4. 에코파워 (4)

### (1) RES 프로젝트 투자



- 풍력 (12)
- 수력 (3)
- 태양열 집열판 (332)
- 공동발전 (1)
- 목재 팔레트 (40,000t/y)



## 4. 에코파워 (5)

### (2) 조합원들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 9,800만 kWh
- 40,247명의 고객 (1.4%)
- 52%의 자체 프로젝트
- 48%의 외부 지원
- kWh당 단순 요금
  - 단순함을 유지
  - 이를 통해 사람들이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합리적 에너지 소비를 하게 됨



## 4. 에코파워 (6)

### (3) 합리적 에너지 사용에 민감하게 반응

- 에너지 공급자의 입장에서 모순처럼 들림
-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람들에게 청구서를 보내고, 직원들을 보내고, 홈페이지, 뉴스레터, 메일 등을 보냄
- 고객의 평균 소비량이 감소 중
  - 8년간 48% 감소
  - 이에 대한 연구 진행 중







1. 에너지 전환
2. REScoop
3. REScoop 20-20-20
4. 에코파워
- 5. REScoop.eu**
6. REScoop - 관리 및 사업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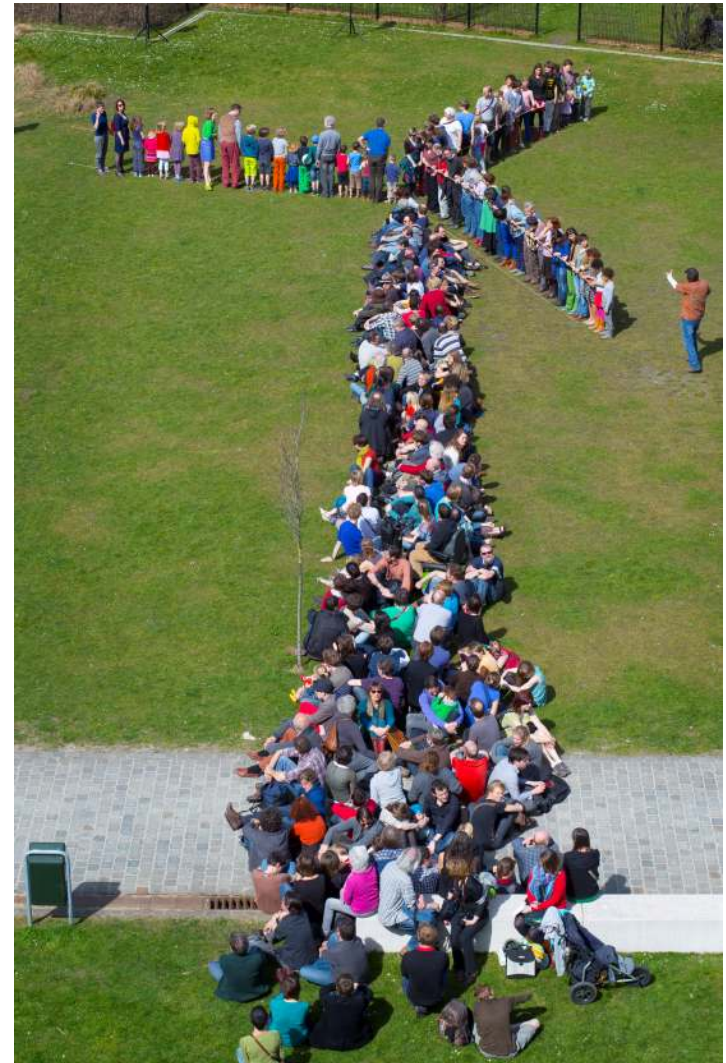
## 5. REScoop.eu

REScoops	wind	PV	hydro	biomass	e-supply	h-supply	other	total
Germany								800
Denmark	250	2	4	1		400		657
Austria	10	30		350				390
Netherlands								110
Sweden								108
Finland								79
Italy (ZEV)		37	26	25	19	21		74
France								60
UK								45
Spain								26
Belgium	6		1	1	2	1		22
Ireland								10
Portugal								6
Croatia								4
Greece								4
Luxemburg								2
Eastern Europe								0
<b>Total Europe</b>								<b>2397</b>



## 5. REScoop.eu (2)

- 2013년 12월 설립
- 벨기에 비영리 기구
- 14개 해외 회원
- 세 가지 목적
  - 지지
  - 회원들에게 서비스 제공 → 재정 장벽
  - 정보 교환



## 5. REScoop.eu (3)

- **미델그룬덴**

- 덴마크 코펜하겐 - 1997년
- 세계에서 유명한 풍력 프로젝트
- 20개 연안 풍력 터빈
- DONG ENERGY와 협력
- 40,500명의 지역주민이 집단적으로 투자
- 부동산 가치는 하락하지 않음



## 5. REScoop.eu (4)

### • EWS Schönau



- 독일 슈나우
- 체르노빌 사고 이후 개시
- 1997 - 지역 전력량 운영
- 1998 - 슈나우 지역에 지속가능 에너지 공급
- 1999 - 독일 전역에 지속가능 에너지 공급
  - 전기 사용자 10,000명
  - 가스 사용자 10,000명
- 2012 - 7개 지역 전력량
- 2014 - 베를린 전력량 운영?
- 2014 - 1,950개 RES 생산지





## 5. REScoop.eu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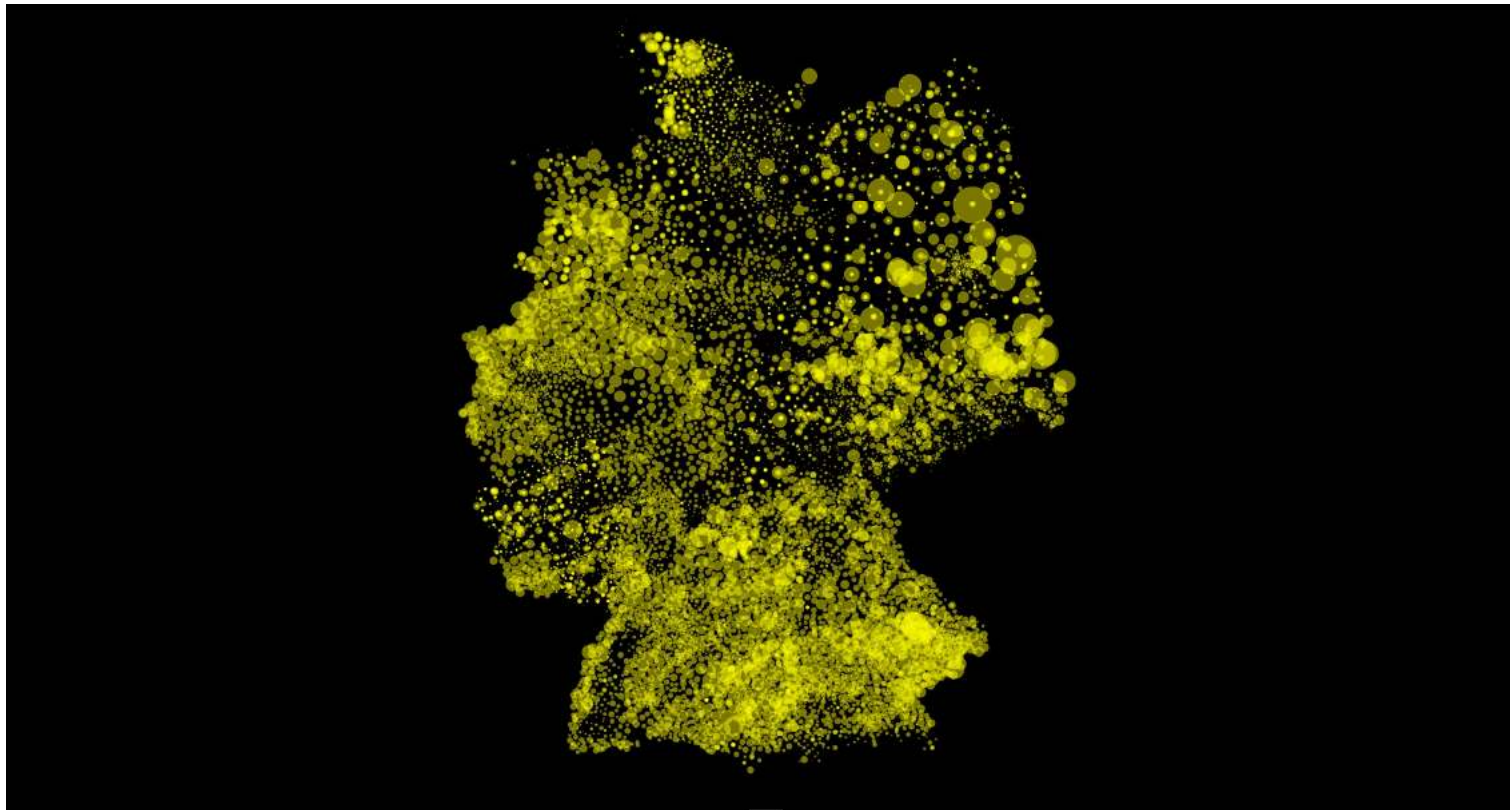
- **Energy4All**

- 영국
- 지역사회 자체 RES 개발 (주로 풍력)
- 지역사회의 풍력 프로젝트 설립을 위한 지침 제작
- 연간 사용료를 대신해 지역 REScoop의 일일 운영 담당 (행정, 관리, 재정 부문)



## 5. REScoop.eu (6)

- [https://www.youtube.com/watch?v=XpvQNn0n\\_Qw](https://www.youtube.com/watch?v=XpvQNn0n_Qw)
- 4년만에 독일에 860,000개의 태양열 집열판 건설





1. 에너지 전환
2. REScoop
3. REScoop 20-20-20
4. 에코파워
5. REScoop.eu
- 6. REScoop - 관리 및 사업 모델**

## 6. REScoop 관리 및 사업 모델

- 일반화 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움
- 각각의 REScoop은 서로 크게 상이함
  - 활동
  - 규모
  - 현지 법률
  - 매출 및 수익 창출
  - 재정
- EU 수준에선 법제화가 되어있지 않음
  - RES - 지원 계획 - 벨기에 대 프랑스
  - 협동조합 - 설립 취지서 - 벨기에 대 프랑스



## 6. REScoop 관리 및 사업 모델 (2)

- 경험을 통해 알게 된 팁과 전략
  - 사람들은 돈보다 RES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함
  - 투명한 업무를 통해 신뢰 확보
  - RES 설비의 직접 소유
  - 좋은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생각
  -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소규모 프로젝트로 시작 (학교 내 PV)
  - 조합원들에게 에너지 공급 (에코파워)
  - 지원 체계에 (너무 많이) 기대지 말 것
  - 지방정부, 기타 REScoop 회원들의 참여 유도
  - 지역사회에 서비스 제공

# 질문

[daan.creupelandt@ecopower.be](mailto:daan.creupelandt@ecopower.be)  
[www.ecopower.be](http://www.ecopower.be) – [www.rescoop.eu](http://www.rescoop.eu)



## 재생가능에너지 확산의 맥락과 기반에 대한 질문

휴부대생활기술네트워크 매니저 김성원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 연구원)

우리는 유럽 RES의 놀라운 성과와 사례에 대하여 귀가 따갑게 들어왔다. 오늘도 유럽 RES의 현재를 경청하면서 부러움과 아쉬움을 동시에 갖게 된다. 성공사례의 벤치마킹은 RES 분야가 아니더라도 종종 '현재의 성과 또는 성공' 이전의 과정과 사회적 맥락을 간과하거나 우리사회의 현재적 조건과 환경을 주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오늘 다시 유럽 RES 협동조합의 성공사례를 들으며 몇 가지 추측과 질문을 하게 된다.

혹시 우리는 첫째, 유럽사회에서 협동조합의 오랜 경험을 간과하고 있지 않은가? 둘째, 현대적인 최첨단 RES 이전 유럽 각지의 낮은 수준의 자연에너지 이용 경험의 수준과 영향에 대하여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를 들어 덴마크의 풍력발전 이전의 풍력에너지의 집적 이용,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 이전 오스트리아의 화목난로와 화목보일러 이용의 경험과 영향과 같은 것이다. 세번째, 유럽 각국의 RES 관련 기술적 수준, 특히 지역적으로 분산된 기술적 수준 더 나아가 시민과학으로서 시민사회의 기술적 기반에 대해서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네번째 분권적인 지역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전통과 더불어 다섯번째 유럽의 지역공동체와 지역공동체의 시민적 자율성, 역동성은 RES 확산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럽 각국 정부의 에너지 가격 또는 시장정책과 제도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

반면, 우리사회의 상태는 어떠한가. 우선 우리는 관제화된 농협 외에 협동조합의 경험은 매우 짧다. 최근 협동조합법의 발효와 함께 협동조합들이 우후죽순으로 증가하였으나 말 그대로 첫발을 내딛었을 뿐이다. 현재 급증한 협동조합의 향후 성패는 차치하고 충분한 협동조합의 성숙된 경험은 분명 축적되어 있지 못하다. 두번째 낮은 수준의 자연에너지 경험은 단절되었거나 산업화 과정에서 급격히 축소되었다. 기술의 역사성 또는 기술이용의 역사성이란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첨단 기술은 갑자기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갑자기 이용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시민의 기술수용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과도한 중앙집중적인 정치사회문화, 과도한 지원의존, 과도한 관 주도 이러한 것들 역시 넘어서야 할 과제다. 전남 장흥의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본인으로선 지역공동체가 상당히 주변화되었고, 지역공동체의 시민사회가 미성숙, 미발달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단지 RES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다. 지역공동체 시민사회의 재구성과 RES 협동조합은 따로 분리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나 가격정책의 문제점을 따로 말할 필요가 없는 수준이다.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할 것인가? 또는 동시에 무엇도 해야 할 것인가? 질문을 해본다. 우선 적정기술을 이용한 낮은 기술 수준의 자연에너지 이용 경험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기술적 경험, 기술의 역사성 이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특히 로컬(Local)! 바로 지역의 기술적 능력, 기술집단이란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고민해야되지 않을까. 유럽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소규모 프로젝트를 고민해야 본다. 지역에서 정말 부담 없이 해볼 수 있는 아주 아주 작은 프로젝트를 시도해봐야 한다. 스몰(Small)이 중요하다. 로컬 스몰(Local Small)이다. 이를 위해서 우린 대중의 자발적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신뢰하면서 로컬 스몰 RES 또는 더 낮은 수준의 기술적 경험을 위한 공동의 기술정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네트워크도 그 중의 하나다. 기술정보 사이트도 그 중의 하나다.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기술정보, 기술적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 이점에서 온라인의 몇몇 카페와 전환기술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험은 소중하다.

동시에 지역공동체에서 시민사회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조금 나아간 이야기일 것 같다. 지역공동체 시민사회에 대하여 도시에 계신 분들은 시 차원에서 사고한다. 도 차원에서는 역시 도라는 행정단위를 놓고 사고한다. 지역에선 군을 기본으로 사고한다. 아직 거친 생각이지만 지역자치, 공동체의 정치사회문화적 경험과 시민사회의 재구성은 동, 면 단위까지 내려가야 한다. 유럽의 정치적 혁신적인 도시라 일컫는 곳이나 RES 성공사례로 언급하는 도시들은 3~5 천 명 인구 수준의 소도시가 많다. 우리나라 시골의 면 수준 인구다. 이점을 우린 종종 놓친다. 유럽의 그러한 소도시는 자율성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면은 자율성이 없다. 행정적인 측면이든 시민사회적 측면이든 마찬가지다.

민주적 정치경험이든 시민사회의 형성이든 RES의 보급 확산이든 '직접성'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 그 동안 한국사회는 급격한 중앙집중화 산업화 과정에서 '간접성'이 확대된 사회다. 유럽의 RES 협동조합의 확산은 단지 에너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직접성'을 강화하는 문제라 생각한다. 우리의 '현재적 조건'은 무엇인가?

로컬의 직접성, 로컬의 기술, 지역 시민사회 등 차원에서 다시 보다 진지하게  
질문해보아야 할 때이다.

## 충남 적정기술협동조합의 현황과 전망

남원근

(충남적정기술협동조합연합회(준) 사무처장)

### 1. 충남 에너지 및 적정기술협동조합 현황

16일 현재 충남에는 199개의 협동조합이 존재한다. 이중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생산 관련 협동조합 2곳, 적정기술과 관련한 협동조합 5곳(아산2 홍성2 공주1) 등 모두 7곳의 에너지 관련 협동조합이 설립됐으며, 현재 서천에서 적정기술 협동조합 1곳이 설립 준비를 하고 있다. 아울러 적정기술과 관련한 협동조합들은 지난 7월 총회를 갖고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절차를 밟고 있다.

충남은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활동 혹은 협동조합 설립이 다른 지역에 비해 활발하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그간 이와 관련한 논의나 단체들의 활동이 대단히 풍부하지도 않았다. 서울시 등은 아파트 집집마다 소규모 태양광발전기 달기 사업을 하지만 아직 충남은 그런 수준의 활동도 크게 벌어지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관에서조차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관련한 정책의지가 강하지는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환경운동 자체는 환경운동연합이나 녹색연합이 일찍부터 활동을 해서 불모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충남의 시민사회운동 기반이 워낙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직도 환경운동 자체조차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태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까지 민간영역에서 활발히 추진한다는 점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을 쓰기 위해 확인을 해보니 지난 16일 천안지역에 한빛태양광발전협동조합이 생겨서 반가웠다. 어떤 주체들이 사업을 추진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런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이 생기는 것은 충남 입장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 2. 충남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의 특징

이처럼 충남은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관련한 협동조합의 설립은 크게 활발하지 않지만, 적정기술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 충남은 적어도 광역



지자체 차원의 적정기술협동조합의 수에 있어 전국 상위에 속한다. 그러나 충남 적정기술협동조합의 수준이 전국 상위라고 자평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현재 충남적정기술협동조합들은 충남발전연구원, 푸른충남21 등의 지원과 자체적인 노력으로 계속 다양한 학습과 워크숍을 통해 전문성을 키워가는 중이다.

충남 적정기술협동조합은 작은손적정기술협동조합의 안병일 이사장, 충남적정기술협동조합연합회(준) 박승옥 회장 등 2명의 실질적인 활동가가 협동조합 설립의 흐름을 만들어냈다. 안병일 이사장은 바이오디젤 만들기 등을 시작으로 로켓스토브 등 적정기술 전 분야에 걸쳐 일찍부터 고른 활동을 하며 적정기술 보급에 앞장섰고, 박승옥 회장은 환경운동을 비롯해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을 맡아 에너지협동조합운동을 전국적으로 이끌고, 자신의 고향인 충남으로 다시 내려와 두레배움터 활동을 통해 생태단열분야를 개척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들이 시작부터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보다는 전력, 화력에 에너지의 소비 억제와 효율성 증대에 초점을 맞춰왔다는 사실이다. 이는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와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보다는 마을단위에서 같이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감 기술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즉,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서 적정기술 협동조합 활동을 해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행전략의 문제이기도 한데, 현재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놔두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것은 자칫 에너지 소비를 더욱 늘릴 수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에너지자립마을을 경우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한 이후 에너지 소비가 더욱 늘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실제로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면서 전기누진세를 줄이는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에너지운동의 본질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모습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생산보다 먼저 소비 절감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충남적정기술협동조합들은 생태단열, 비전력펌프, 소수력발전기, 코켓스토브, 화덕 등을 에너지 절감을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조합 역시 지역마다 마을을 중심으로 설립됐으며, 마을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나가겠다는 소박한 전망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적정기술의 보급과 더불어 충남주민, 더 정확하게는 마을주민들이 에너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기 일처럼 여길 때 신재생 에너지사업에 뛰어들겠다는 장기적인 전망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어떤 설비에 조합원으로서 투자를 하고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기 보다는 전체적인 충남 마을단위의 에너지 생태계를 바꾸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발제자가 밝힌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적정기술

모두 초보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관의 주도보다는 자발적인 생태계 조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 3. 충남 적정기술협동조합의 전망

충남도에서도 적정기술의 보급과 확대를 위해 올해 논산 안심마을에서 생태단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더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하니 반가운 마음이다. 충남적정기술협동조합들 역시 올해 준비기를 거쳐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마을 단위의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조합별로 계속 조합원들이 늘고 있고, 기존 협동조합이 설립된 곳 외에도 적정기술협동조합을 설립할 의사를 가진 곳들이 있어 보다 협동조합의 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충남적정기술협동조합연합회는 기존 협동조합과 신규로 생길 협동조합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연합회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발제자의 발표와 같은 유럽에서의 에너지협동조합 생태계에 근접하는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화력에너지의 소비의 최대한 억제하고,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원전과 화력발전소의 수를 줄여나간다는 게 우리 조합의 전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충남도 차원의 정책의지와 충남발전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연구사업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관 주도의 사업이 아니라 마을주민이 지속가능한 참여와 실천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충남이 전국 최고의 에너지자립지자체가 되길 기대한다.